

아동의 그림책 읽기에서의 공감의 양상과 의미*

나 선 희**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감이 인간과 텍스트를 비롯한 타자 사이의 소통과 이해에서 갖는 의미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공감의 의미를 아동의 그림책 읽기 상황을 통해, 좁게는 텍스트라는 대상 이해의 관점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아와 타자 및 세계 이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환경 문제와 빈곤, 전쟁, 따돌림, 인종차별, 아동 노동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자아 존중감, 정직, 우정과 같은 인류 보편의 덕목을 소재로 한 그림책 31권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6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독서 감상문을 수집, 이를 공감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B5A07037558)

** 성균관대 연구교수

연구결과, 첫째 아동 독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나 텍스트와의 유사성을 토대로 등장인물의 정서에 쉽게 공감하였다. 이는 독자의 경험의 크기와 다양성이 공감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 독자들은 전쟁과 같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상을 통해 등장인물의 역할을 대신해봄으로써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인물의 고통을 이해하였다. 이는 공감이 독자가 경험의 유사성을 토대로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아동은 역지사지의 역할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낯선 등장인물 또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경험에 기반 한 자아의 무한 반복 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확장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실로 여겨진다. 이는 또 역으로 텍스트가 현실에서 경험이 제한된 아동 독자에게 다양한 간접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써 공감의 가능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동 독자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인물들의 삶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아동 독자의 대상에 대한 공감 가능성은 상당 부분 아동 독자의 가치지향에 좌우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아동 독자를 극심한 빈곤과 전쟁과 같은 낯선 상황에 자신을 놓아보고, 등장인물의 역할을 대신하게 추동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낯선 상황에 대한 아동 독자의 공감은 텍스트의 현실을 하나의 완결된 세계로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읽기를 통해 그 깊이를 더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아동 독자는 텍스트의 또 다른 현실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 보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자를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아가 더 좋은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공감은 텍스트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인물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텍스트 밖에 있는 독자 자신과 서로 다른 타자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거쳐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동

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공감, 그림책, 아동, 독자 반응, 타자, 자아이해

I. 서론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사이의 소통 수단과 방법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첨단 소통 수단과 방법이 넘쳐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일상 속에서 쉽게 그리고 비교적 장시간 이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정한 소통의 부재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학교 폭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이나 언어 및 신체 폭력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폭력은 개인과 가정,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¹⁾ 그런데 이 원인들의 기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일정부분 개인과 가족 내 구성원, 개인과 학교 내 구성원, 개인과 집단 및 사회 간의 소통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쟁에 기반 한 엘리트 중심 사회이자, 산업화와 지식정보화, 핵가족화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깊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²⁾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가능성 또한 용이해져, 예전처럼 정보를 얻기 위한 직접적인 만남이나 경험이 오히려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1) 김선애, 「가정, 학교, 친구 관련 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한국청소년학회, 2007, 101~126쪽; 김창근·임계령, 「학교폭력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한국법학회, 2010, 173~198쪽; 정진성,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365~394쪽; 황석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분석연구-서귀포시 초, 중, 고학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9, 제주학회, 2006, 253~281쪽.

2) 이석순, 「유아의 공감 발달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9,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9, 239~266쪽.

취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술을 습득,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함으로써 타자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테러와 같은 기형적인 대인관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가족 및 학교 구성원과의 유대 및 지지 결여, 사회에서 겪는 소외감 등이 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진정한 소통이 인간 유대 및 신뢰의 출발점이자 유대의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함을 말해준다.³⁾

최근 사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 폭력이 저연령화, 집단화, 공포화 되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⁴⁾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감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인생 초기부터 적극 함양될 필요가 있다.⁵⁾

공감은 한 개인의 정서와 타자(대상)의 정서가 소통되어 한 개인이 타자의 정서를 체험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정의적 측면이 다소 강한 개념이지만,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체험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공감은 정서 체험 이외에 대상에 대한 이해 역시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점에서 보면 공감 능력 함양은 인간들 사이의

- 3) 김선애, 「가정, 학교, 친구 관련 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101~126쪽; 김창균·임계령, 「학교폭력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173~198쪽; 정진성,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365~394쪽; 황석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분석연구-서귀포시 초, 중, 고학생을 중심으로-」, 253~281쪽.
- 4) 문용린 외,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8, 13쪽.
- 5) 조성호와 이희경은 공감의 결핍이 경쟁과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조성호·이희경, 「공감과 마음이해: 종합적 접근」, 『인간연구』 15,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8, 169~201쪽.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기형적인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한편 문학 작품은 비록 가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하여 인간 삶의 다양한 국면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아동은 문학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며, 타자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다 나은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은 문학 작품을 경험함으로써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을 넓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⁶⁾

이를 다시 공감의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아동 독자는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제반 갈등과 문제를 문학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와 갈등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공감 관련 연구자들이 문학 텍스트를 중요한 공감 기제로써 활용하거나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 능력의 증진 효과를 고찰한 예는 모두 이같은 문학 작품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⁷⁾

6) 선주원, 『어린이 문학교육의 방법』, 서울: 박이정, 2006, 53~58쪽.

7) 양진희·박윤, 『또래관계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활동이 비인기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123~152쪽; 이수정·이현림,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7(2), 한국아동교육학회, 2007, 101~126쪽; 정대현·신원애,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동일시 현상과 자아개념 분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7,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1, 273~297쪽; 이복순·강영하·남윤석, 『독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장애아동에 대한 또래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1), 한국청소년학회, 2007, 101~126쪽; 정유미, 『공감의 기제로서의 서사 텍스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293~316쪽; 정재식, 『흙과 들뢰즈의 공감이론 사용법: 경험론의 문학적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18세기 영문학』 4(2), 한국18세기 영문학회, 2007, 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문학이 갖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고, 보다 넓은 독자층을 가짐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림책을 연구 매체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림책은 위에서 언급한 아동문학의 특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인과 아동이라는 이중 독자(dual audience)를 갖는다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바,⁸⁾ 본 연구 결과를 향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적용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매체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공감 능력의 의미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공감을 아동의 그림책 읽기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좁게는 텍스트 이해 관점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타자 이해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동의 그림책 읽기를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transaction)’⁹⁾으로 전제하 가운데, 아동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경험하는 공감의 양상은 어떠하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이 아동의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공감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여, 그림책 읽기를 통한 공감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인 만큼,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의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0쪽; 최미정, 『그림책 활용 독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감능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8) 여기서 이중독자는 그림책 출판 및 구매에 관여하는 중개자 및 검열자로서의 성인보다는 일반 독자로서의 성인을 포괄하여,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그림책 독자의 폭넓은 연령층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9) C. R. Cooper(ed.), *Researching Response to Literature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Points of Departure*, Norwood: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5.

그러나 국외의 경우,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더 넓게 공감을 주제로 문학에 접근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감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디킨스의 사실주의 소설을 조망한 해리슨(Harrison)의 연구와¹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공감의 관점에서 접근한 골드팜(Goldfarb)의 연구,¹¹⁾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허구의 세계에 대한 독자의 정서적 반응이 갖는 역설적인 측면을 고찰한 망동사(Mendonça)의 연구¹²⁾를 들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보듯, 국외의 경우, 문학과 관련한 공감 연구는 개별 독자반응의 관점에서보다는 문학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문학 수용 과정에서의 공감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전문학은 물론 시 텍스트와 장·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수용과정에서의 공감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서유경¹³⁾은 고전문학에서 다양한 이본이 생산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심청전』 이본의 생산과 수용을 통해 ‘공감적 자기화’가 이루어지는 양상과 방식을 체계화하고, 공감적 자기화를 중심으로 생산적 수용과 통합적 문학 교육을 설계하였다.

김효정¹⁴⁾은 중고등학생들의 소설 텍스트 수용과정에 공감이 관여하는

10) M-C. Harrison, "The Paradox of Fiction and the Ethics of Empathy: Reconceiving Dickens's Realism". *Narrative* 16(3), 2008, pp.256~278.

11) N. D. Goldfarb, "The Value of Literature in Difficult Ti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umanities*, No. 8(11), 2011, pp.273~279.

12) D. Mendonça, "Absolutely Positively Feeling that Way and More: Paradoxes of Fiction and Judith Viorst's Alexander Stories", *Philosophy in Children's Literature*. (ed. by P. R. Costello, 2012), Lanham: Lexington Books.

13) 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4)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과정을 고찰하여 공감의 양상과 유형을 밝히고 공감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권장 도서 목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감의 양상을 ‘작중인물의 정서 재현’, ‘작중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 ‘작품을 매개로 한 작품 외적 대상의 포용’으로 정리하고, 공감의 유형은 크게 ‘텍스트 주도형 공감’과 ‘독자 주도형 공감’ 그리고 텍스트와 독자 ‘상호 주도형’ 공감으로 분류하였다.

강창원¹⁵⁾은 공감 중심 문학 감상 교수·학습방법을 구안하고 실제 학습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 가능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개별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공감의 문제에 접근하기보다, 공감 중심 문학 감상 교육의 원리와 개념을 소개하고 그에 근거하여 『엄마는 과일중』이라는 장편동화를 이용한 학습모형을 제안한다.

또 조양희¹⁶⁾는 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시적 공감의 개념과 특성 및 시적 공감의 요소와 과정을 정리하고, 독자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시적 공감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시 텍스트를 소개한 후 생각을 적게 하고 내용을 분석한 후, 시적 공감의 양상을 ‘공감적 참여’, ‘공감적 이해’, ‘공감적 공유’라는 과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정효진¹⁷⁾은 공감을 통한 서사문학 읽기 교육의 본질을 정리하고 그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진정한 문학수용을 위한 문학 읽기를 ‘공감적 읽기’로 재 개념화하고 공감을 통한 서사문학 읽기 방안을 공감 대상 발견, 이해, 확장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15) 강창원, 『공감 중심의 문학 감상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6) 조양희, 『시감상에서의 시적 공감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7) 정효진, 『공감을 통한 서사문학 읽기교육』,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 점에서 보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문학수용과 관련된 공감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더 많으며, 고전문학과 소설을 비롯한 서사문학과 시텍스트에 국한되어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다양한 관계 뿐만 아니라, 지면의 한계에 따른 공간을 통해 어린 유아와 성인이 모두 읽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어린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어,¹⁸⁾ 그 어떤 문학 장르보다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의 양상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공감 능력 증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와 갖는 연계성을 고려하고, 또 활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갖는 장점을 고려해보면, 그림책 읽기에서의 공감의 양상과 의미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공감 능력 함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연구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감 연구가 주로 아동의 자존감이나,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유능감, 특수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같은 아동의 정서발달이나 도덕성 발달과 같이 발달 심리학에 편중되어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하면,¹⁹⁾ 실제 아동 독자의 문학 수용과 관련된 공감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심리 및 상담 치료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그림책 수용에서의 공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8) M. Nikolajeva & C. Scott, *How Picturebooks Work*, London: Garland Publishing, 2001, pp.8~24.

19) 양진희·박윤, 「또래관계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활동이 비인기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123~152쪽; 연진영, 「아동의 공감 발달 및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9(2), 한국아동학회, 1988, 29~31쪽; 이복순·강영하·남윤석, 「독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장애아동에 대한 또래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101~126쪽; 조효진·손난희, 「공감능력과 이타 행동」, 『상담학연구』 7(1), 한국상담학회, 2006, 1~9쪽; 최미정, 「그림책 활용 독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감능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감의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좁게는 텍스트 이해(수용)의 과정을 밝히고, 보다 넓게는 타자 이해 및 수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림책과 아동 독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는 아동의 그림책 읽기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즉 공감할 수 없는 대상을 즐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감을 그림책과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원리이자, 즐거운 책읽기의 조건으로 전제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공감의 양상과 의미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연구자는 학습자 반응중심 문학교육의 관점 아래, 그림책의 의미는 그림책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읽기를 통해 구성·재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림책 현실에 공감하는 아동 독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공감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인간 삶의 다양한 국면을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림책을 검토,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읽게 될 권장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과 어린이 도서 연구회, (사)행복한 아침독서를 비롯한 유관단체에서 소개 및 권장하는 도서목록을 참고하고, 아동 문학교육을 전공한 2인의 전문가와 함께 그림책을 검토해보는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읽게 될 그림책은 환경 문제나 기아, 빈곤, 전쟁, 이혼, 따돌림, 인종차별, 치매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룬 것에서부터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나, 생명 존중, 정직, 우정, 배려 등과 같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아동이 함양해야 할 보편적 덕목을 그린 것으로, 총 31권이었다. 그림책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그림책 목록

	책 이름	글작가/그림작가	출판사
1	곤다르의 따스한 빛	미나미 나나미 /요 소메이	주니어김영사
2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유리 솔레비츠	시공주니어
3	노란 샌들 한 짝	카렌 윌리엄스/ 둑 체이카	맑은 가람
4	리디아의 정원	사라 스투어트/데이비드 스몰	시공주니어
5	하루	이브 번팅/ 로널드 험러	보물창고
6	엄마의 의자	베라 윌리엄스	시공주니어
7	부러진 부리	너새니얼래첸에이어/ 로버트 잉겐	문학과 지성사
8	만년샤쓰	방정환/김세현	길벗 어린이
9	잘가, 토끼야	이상권/이태수	창비
10	벤의 트럼펫	레이첼 이사도라	비룡소
11	그레이트는 놀라워	메리 호프만/ 캐롤라인 빈치	시공주니어
12	일어나요, 로자	니키 지오바니/ 브라이언 콜리어	웅진주니어
13	비밀의 방	유리 솔레비츠	시공주니어
14	백장미	크리스토프 갈라즈/ 로베르트 인노센티	아이세움
15	아침별 저녁별	조 외슬랑/요한나 강	미래 아이
16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거리에 산다	네레 마이/ 베레나 발하우스	아이세움
17	에드워드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존 버닝햄	비룡소
18	전쟁	아나이스 보즐라드	비룡소
19	어느 날 밤 전쟁기념탑에서	페프	주니어 파랑새
20	토끼들	존 마드슨/ 손 탠	주니어 파랑새
21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비룡소
22	명애와 다래	이형진	느림보
23	거짓말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24	찬다 삼촌	윤재인	느림보
25	잃어버린 아이들	메리 윌리엄스/그레고리 크리스티	사계절
26	숲의 사나이 소바즈	제니퍼 달랭플	주니어 파랑새
27	이건 꿈일 뿐이야	크리스 반 알스버그	베틀북
28	마지막 거인	프랑수아 플라스	디자인 하우스
29	책과 못된 나무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시공주니어
30	강물이 흘러가도록	제인 윌런/ 바버러 쿠니	시공주니어
31	난 꿈인 채로 있고 싶은데	J. 슈타이너/ J. 필러	비룡소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G시 G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이다. 연구 참여자를 6학년으로 정한 것은 그들의 그림책 읽기 수준이나 능력 보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아와 타자 및 세계 이해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인종차별이나 이혼, 아동 노동, 빈곤, 따돌림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²⁰⁾ 연구자는 그림책 31권을 제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언제든지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전체 그림책 가운데 최소한 3권 이상씩 읽도록 권장하였으나 강요하지는 않았다. 연구 참여자가 읽어야 할 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독자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해서 읽을 때 독서 몰입은 물론 텍스트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런 경험이 쌓일 때 유능한 성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며, 또 실제 현실에서의 자연스런 책읽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연구자는 본 연구에 앞서 경기도 G시의 6학년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 가운데 2권씩 원하는 책을 골라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감상문은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였으며, 감상문 제출 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예비연구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절차를 결정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해당 초등

20)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은 지식과 기능, 가치, 참여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차별과 편견, 다양성, 인류애, 상대성 인정을 비롯한 ‘가치’와 차별과 편견 없는 태도, 실제 삶과의 관계 갖기, 자발적 태도와 실천과 같은 ‘참여’의 영역은 고학년(5~6학년)의 교육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다. (현은자 외,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학지사, 2013, 32쪽.)

학교 선생님과 사서 선생님과 논의한 끝에 본 연구에서는 토론시간을 별도로 갖지 않았다. 연구자는 예비연구에서 토론시간에 보여준 아동의 반응이 자신들이 적어 제출한 독서 감상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점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 선생님과 사서 선생님과 논의한 결과, 별도의 토론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31권의 그림책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책을 읽고 최소한 3편 이상의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감상 기록지는 연구자가 제공하였으며, A4 크기로 동일한 형식이었다. 독서 감상문은 일정한 형식 없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게 하였다. 그림책을 읽는 것에서 독후감 제출까지의 기간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 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감상문 총 142편을 본 연구의 주된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그림책의 특성과 아동 독자 반응 및 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독서 감상문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공감을 통해 타자와 텍스트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면화해 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독서 감상문 가운데 독자의 공감적 이해가 표현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은 나와 비슷하다’, ‘나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한 것을 보고 나도 슬펐다’, ‘웬지 마음이 아팠다’, ‘...에서는 나 역시 기뻐다’와 같이 독자의 대상에 대한 공감이나 동감 등이 표현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목화한 다음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쳐, 아동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공감의 양상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현실에서 타자와의 공감 및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목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의 타당도는 김영천(1998)이 소개한 신뢰성 평가준거에 따라 점검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독서 감상문은 31권의 그림책 가운데 서너 권을 제외하고, 대체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²¹⁾ 독서 감상문을 통해 본 공감의 양상은, 소설 텍스트를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독자의 공감 양상을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동 역시 공감 능력이나 태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따른 독특한 공감 양상 역시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31권의 그림책이 대부분 전통 서사 방식을 따르는 주제중심의 그림책으로, 글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 주제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수가 글과 그림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는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²²⁾ 다시 말해 그림이 글 텍스트가 전하는 이야기를 충실히 재현하는 ‘동어반복’의 양상을 띠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 글 텍스트만으로도 주제 이해가 가능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그림책을 글을 중심으로 일반 동화와 유사하게 읽어나갔음을 알 수 있다.

감상문에 표현된 공감의 강도와 빈도는 『까마귀 소년』과 같이 학교에서의 따돌림의 문제를 다룬 것이나, 빈곤과 전쟁 상황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의 삶을 재현한 책에서 보다 두드러진 반면, 아동 없이 성인을 등장인물로 하여 다소 철학적인 문제를 다룬 『비밀의 방』과 같은 경우 낮은 형태를 띠었다. 또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따돌림의 대상이 되거나, 가난을 비롯한 어려운 환경에

21) 『비밀의 방』이 1편, 『내가 만난 꿈의 지도』와 『강물이 흘러가도록』이 2편, 『만년 사쓰』가 3편이었으며, 나머지는 4편에서 10편까지 분포되었다. 감상문이 가장 많은 그림책은 『까마귀 소년』(10편), 『부러진 부리』(9편), 『찬다 삼촌』(9편)이었다.

22) 『토끼들』이나 『난 꿈인 채로 있고 싶은데』, 『벤의 트럼펫』처럼 그림에서 다양한 의미를 구성해볼 수 있는 그림책이 있었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감상문에서는 그림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그림책을 주제 파악의 관점에서 글 텍스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읽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한 인물에 대한 공감의 주를 이루어, 주인공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인물들이 주요인물로 등장할 경우, 긍정적인 결말에 이르는 주인공보다는 상황이 바뀌거나 호전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되는 인물의 고통에 더 공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독서 감상문을 통해 보여준 그림책 읽기에서의 공감의 양상과 의미를 사례를 들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

등장인물은 이야기에서 다루는 사건의 행위자로서 이야기 구성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는 이야기의 이해와 직결되는 바, 사건의 국면에서 등장인물이 느꼈을 정서에 공감하는 것은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등장인물이 작중에서 처한 상황에서 느꼈을 감정을 마치 그대로 재현이라도 하듯 기뻐하거나 슬퍼하며 책을 읽어나갔다. 그런데 이러한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첫째, 독자 자신이 등장인물이 작중에서 겪은 사건과 유사한 경험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 아동독자들은 경험의 유사성을 토대로 등장인물과의 거리를 좁히고 이야기에 몰입하였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소재로 한 『까마귀 소년』에 대한 지호의 반응을 보면, 독자의 경험이 작중인물의 경험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할 경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 정도를 높여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물론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난 이 이야기를 읽으며, ‘까마동이야, 넌 참 대단하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난 1학년 때 방과 후 교실에 가는 것부터 심지어 수업을 듣는 것까지도 쑥스러워서 피했다. 그러했던 나의 경험이 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더욱더 동정심이 강해졌다. 그리고 학예회에서 까마귀 소년, 까마동이가 최초로 인정받았을 때, 난 일종의 쾌감과 축하의 마음을 느꼈다. (지호)²³⁾

독자가 자신이 과거에 한 경험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텍스트 내의 인물에 공감하고 이해에 이르는 예는 일반적인 인지과정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호의 감상문에서 보듯, 경험의 유사성을 토대로 한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의 의미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텍스트의 특정 국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구성하는 의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따돌림 당하는 까마귀 소년의 처지에 대한 공감은 일시적인 감정의 공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읽어가는 동안 구심점 역할을 하여 인물의 후속 행동을 지지하고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등장인물들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독자들의 과거 경험은 실제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을 그린 텍스트에 대한 경험까지 포괄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를 타고 들어와 원주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고 급기야 그들을 내쫓은 토끼들의 이야기를 그린 『토끼들』을 읽고, 원주민인 ‘우리’들의 입장에 쉽게 공감했는데, 여기에는 이야기의 형태를 통해 알게 된 일제강점기에 대한 간접체험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연구 참여자는 『토끼들』을 우리의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하멜른의 피리부는 사나이』와 연결 지으면서 침략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은유로 이해, 공감하였다.²⁴⁾ 이 예는 유사 텍스트에 대한 읽기 경험을 통해

23) 연구 참여자의 감상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괄호 안의 이름은 가명임. 이하 인용문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연구 참여자의 가명임.

24) “이 책은 꼭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와 <피리 부는 소년> 이란 이야기가 합쳐진 느낌이다. 일제강점기처럼 토끼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고, <피리 부는 소년>에서처럼 모든 아이들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승현)

내면화된 상황이, 자신이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의 정서와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작동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아동 독자는 등장인물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 가운데 등장인물과 유사한 경험을 환기하여 이를 자신이 읽은 텍스트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 독자의 공감 형성에 있어, 텍스트를 통한 간접 경험이 삶에서의 직접 경험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자신들이 삶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 일지라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과정을 통해 텍스트가 전하는 사건 속 인물에게 어렵지 않게 공감하였다. 다시 말해 아동독자들은 전쟁이나, 기아, 빈곤과 같이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 생경한 상황 속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그들이 겪을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있었다.

처음에 나오는 솔이라는 아이는 대한민국에 살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나왔다. ‘애 진짜 이 아인 행복해 보여’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하산이라는 아이는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매일 지하 갭도에서 오십 킬로그램이 넘는 석탄을 실어올리고 배고픈 동생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말이 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다운)

이 인용문은, 지진이나 전쟁 또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중노동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각국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대한 독서 감상문의 일부이다. 다운이는 매일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린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고통에 공감한다. 다운이는 자신의 처지는 하산의 것과 상반되는 것이지만, 상상을 통해 그의 역할을 대신해봄으로써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인물의 고통을 이해한다. 이는 결국 공감은 독자가 경험의 유사성을 토대로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아동독자는 자신의 것과 같거나 유사한 경험을 통해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험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역지사지의 역할 수행을 통해 직접 등장인물의 낮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봄으로써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때, 자신의 경험에 기반 한 자아의 무한 반복 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확장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실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현실에서 극히 제한된 형태의 경험만이 가능한 아동 독자에게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해줌으로써, 역으로 아동의 공감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

연구 참여자들이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텍스트에 대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역지사지를 통해 등장인물의 삶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동 독자의 내면에 자리한 인류 보편의 덕목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공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비록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류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등장인물이 느낀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켜낸 우정이나,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 정직, 배려,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저항 등과 같은 가치에 대한 믿음이 아동 독자로 하여금, 자신들과는 낮은 상황에 있는 인물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추운 것을 예상하고도 어머니께 양말과 셔츠를 드렸다는 것은 매우 효자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집거리가 이십리는 더 돼서 창남이의 집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집이 멀는데

도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고 하니 창남이보다 착한 고등학생이 있을까?(아마도 전혀? 없을 것 같다.) (지연)

이렇게 로자가 다시 앉은 까닭은 그만 차별하라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로자는 버스기사가 경찰을 부른다고 했어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부르세요”라고 답한 걸 보면 당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차별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다. (민재)

앞의 첫 번째 인용문은 방정환의 『만년샤쓰』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과 극심한 가난이 현실의 아동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반해, 아이들은 창남이의 호연지기를 효와 근면 성실이라는 인류 보편의 덕목과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의 용기 있는 저항을 그린 『일어나요, 로자』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그에 대한 저항은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낯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종 차별에 당당히 맞서 싸운 로자의 태도와 용기에 공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 두 예는, 연구 참여자들이 등장인물이 느꼈을 정서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등장인물이 행동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치를 인지적으로 성찰하여 공감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예는 아동 독자들이 텍스트의 현실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현실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에도, 인지적 성찰을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작중인물들의 태도와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낯선 상황에 대한 아동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텍스트의 현실을 하나의 완결된 세계로서, 다시 말해 독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이해와 공감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낯선 상황에 대한 아동독자의 공감과 이해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동독자들이 텍스트의 현실을 완결된 이야기의 세계로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상황에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비판적 추론을 시도해봄으로써 공감의 깊이를 더하고 있었다.

남자아이처럼 노력을 하면 좋은데 남이 불행해지는 노력은 하지 말고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다. (경주)

이 책처럼 전쟁에서 모든 아이가 가랑이처럼 잘 될 수는 없다. (시정)

남자아이는 남게 되고 그나마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가게 된
다는 현실이 슬프다고 생각했다. 빈부 때문에 죄도 없이 빈민촌에 있어
야 한다는 것도 비판하고 싶다.(민서)

위의 세 인용문 중 첫 번째는 이상권의 『잘가, 토끼야』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로,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한 소년의 노력은 가상할 수 있으나 토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또 두 번째 인용문은 수단 내전을 배경으로 한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감상문인데 아동은 전쟁 난민으로 생활해온 아이가 미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결말에 대해 전쟁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집은 물론 목숨을 잃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텍스트의 가랑이가 맞는 긍정적인 결말은 매우 드문 경우임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인용문은 『노란 샌들 한 짝』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로, 그나마 돈이 있는 자만이 빈민촌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위의 세 가지 예는, 얼핏 보면 아동독자들이 등장인물의 삶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감의 대상이 주인공이라는 중심인물에서 주변인물 또는 가상의 주변인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잘가, 토끼야』에서는 토끼를 잡고 싶어 하는 주인공, 소년의 입장에 대한 공감에서 피해자인 토끼에 대한 공감으로, 또 『잃어버린 아이들』과 『노란 샌들 한 짝』에서는 고난

중에 행복한 결말을 맞는 주인공에 대한 공감에서 오히려 주인공처럼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 못하고 고통스런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주변인물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인물들에 대한 공감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는 아동독자들이 비판적 추론이라는 인지적 성찰을 통해 공감의 대상을 자신의 경우와 유사한 입장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같은 대상으로 더 넓게 확장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자기 이해와 타자 및 세계 이해의 발판으로서의 공감

연구 참여자들이 보여준 작중인물에 대한 절대적 공감과 비판적 거리두기는 현실에 몸담고 있는 아동이 오히려 텍스트의 현실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자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발판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한 감상문을 살펴보면, 종민이는 『부러진 부리』에서 두 인물이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서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하여, 공감 형성은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의 두 국면이 서로 연결될 때 가능함을 시사해준다.

못 먹어 말라가던 참새에게 떠돌이 아저씨가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나눠주며 서로 친하게 된 이야기다. 계속 꾸준히 인생을 달리는 참새에게 부러진 부리라는 장애물이 오자 브레이크를 밟는다. 떠돌이 아저씨도 아마 화재나 빛, 해고 등으로 멈춰 섰을 것이다. 하지만 둘이 만나 참새와 떠돌이 아저씨와 다시 인생을 달릴 것이다.(종민)

종민이는 텍스트에는 언급되지 않는 떠돌이 아저씨의 과거를 상상하여, 그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부리가 부러진 참새와 같이 불행에 던져졌을 것이고, 그것은 달리는 인생에 브레이크와 같지만 유사한 처지에 있는 그들이 서로 이해하며 의지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

럼 종민이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보여주는 배려와 우정을 같은 고통을 경험해본 자들의 공감에 기초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를 보면, 아동 독자가 등장인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자신의 것과 견주어보는 과정만으로도 자기 이해 및 타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 및 타자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공감으로 귀결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로 자아를 이해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내가 그렇게 5년 동안 외톨이었다면 우울하고 재미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아무리 칭찬을 해주셔도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나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었다. 외톨이에도 능력은 있다. 그리고 친구는 소중한 존재이다.(유경)

유경이는 자신은 까마귀 소년처럼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숨은 재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인식은 곧 인간은 누구나 주변인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신의 장점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또 타자 또한 곁으로 드러난 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 이해 및 타자 이해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타자의 입장에 자신을 놓아보는 공감의 노력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타자를 수용하는 예는 문학 텍스트가 다양한 현실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해 개인이 자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보다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을 텐데 ... 나중에 파비아양이 전쟁을 끝나게 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할

때 참 머리가 좋고 전쟁이란 것을 잘 아는 친구 같아서 좋았다. 그 어린 꼬마가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이 멋있었다. 나도 해보고 싶지만 나에게게는 그런 용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규린)

꿀찌라고 놀려도 1등이 된다는 것, 꿀찌라고 어렸을 때 놀림 받더라도 이것은 내가 자라는 데에 필요한 하나의 계단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나만의 상상 속에서, 나의 장난감 속에서 꿀찌였던 것이 어느 날 한 순간에 1등이 되듯이 우리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정직할수록 1등이 되어가는 것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다.(재연)

위의 인용문은 『전쟁』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로, 규린이는 파비앙이 전쟁 상황에서 보여준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비추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까마귀 소년』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로, 재연이는 한 순간의 어려움은 자아성장에 필요한 단계임을 긍정한다. 이렇듯 아동 독자들은 텍스트의 또 다른 현실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 보며 자신을 이해, 확장하며, 타자를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음 인식이의 감상문은, 『부러진 부리』에 대한 것으로, 타자인 텍스트의 등장인물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공감의 노력이 더 좋은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 책은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교훈은 불행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라도 절망하지 말고 참새처럼 노력하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리가 부러지는 사소한 불행이라도 그냥 방치하면 큰 불행으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면 지구는 불행하더라도 항상 웃음꽃이 가시지 않는 세계가 되지 않을까?(인석)

인석이는 불행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으나 절망하지 않고 노력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때 무엇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

요함을 역설한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에서 비롯되는 손길을 내민다면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회를 일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감은 텍스트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인물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텍스트 밖에 있는 독자 자신과 서로 다른 타자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거쳐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제러미 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자연계의 구성원들 가운데 인간이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감 능력은 인간이 지닌 세계 지배의 우월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미 인간과 인간(타자)사이의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친사회적 행동의 원동력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감이 인간과 텍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타자 사이의 소통과 이해에서 갖는 의미를 출발점으로 삼아, 아동의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의 공감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공감 능력을 아동의 그림책 읽기 상황을 통해 접근해봄으로써, 좁게는 텍스트라는 대상 이해의 관점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아와 타자 및 세계 이해의 관점에서 공감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독서 감상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소설 텍스트를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독자의 공감 양상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텍스트의 수용 과정에서 독자

들이 보이는 공감 양상에는 연령상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아동 독자들 또한 텍스트 수용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 능력과 다양한 공감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본 연구 결과,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따른 독특한 공감 양상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31권의 그림책이 대부분 전통 서사 방식의 주제중심 그림책으로, 글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 주제 파악이 가능하거나 또 글과 그림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는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이 대위관계에 있는 것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그림책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상문에 표현된 공감의 강도와 빈도는 『까마귀 소년』과 같이 학교에서의 따돌림의 문제를 다룬 것이나, 빈곤과 전쟁 상황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의 삶을 재현한 책에서 보다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아동 없이 성인을 등장인물로 하여 다소 철학적인 문제를 다룬 『비밀의 방』과 같은 경우 낮은 형태를 띠었다. 그런데 이는 아동 독자는 자신과 같은 연령대의 인물과 그들의 삶에 더 공감함을 보여주는 예로, 등장인물의 사회적 위상이 아동 독자의 텍스트 수용과정에서 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따돌림의 대상이 되거나, 가난을 비롯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인물에 대한 공감이 주를 이루어, 주인공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인물들이 주요인물로 등장할 경우, 긍정적인 결말에 이르는 주인공보다는 상황이 바뀌거나 호전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되는 인물, 즉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더 공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보여준 공감의 양상과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독자의 선행 경험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아동

독자들은 자신이 책에서 읽거나 삶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 공감하였다. 이는 독자의 공감 능력은 독자가 한 경험의 크기와 다양성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 독자들은 또 전쟁과 기아, 빈곤과 같이 경험해본 적이 없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상을 통해 등장인물의 역할을 대신 해봄으로써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인물의 고통을 이해하였다. 이는 결국 공감은 독자가 경험의 유사성을 토대로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아동 독자는 역지사지의 역할 수행을 통해 등장인물이 처한 낯선 상황에 들어가 봄으로써 자신과는 다른 처지의 등장인물 또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이는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경험에 기반 한 자신의 무한 반복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확장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실로 여겨진다. 또 텍스트가 현실에서 극히 제한된 경험만이 가능한 아동 독자에게 다양한 간접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써 아동 독자의 공감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아동 독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켜낸 우정이나, 역경을 극복 하려는 의지와 노력, 정직, 배려,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저항과 같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과 다른 상황에 있는 인물에게도 공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 독자의 대상에 대한 공감 가능성은 상당 부분 아동 독자의 가치 지향에 좌우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개인의 공감의 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아동 독자로 하여금 극심한 빈곤과 전쟁과 같이 낯선 상황에 자신을 놓아보고, 등장인물의 역할을 대신하게 추동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이 때 아동 독자들은 텍스트의 현실을 하나의 완결된 세계로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적 성찰을 통해 비판적 추론을 시도해봄으로써,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아동 독자는 텍스트의 또 다른 현실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 보며 자신을 이해, 확장하고 타자를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아가 더 좋은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아동의 그림책 읽기에서의 공감은 텍스트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인물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텍스트 밖에 있는 독자 자신과 서로 다른 타자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거쳐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창원, 『공감 중심의 문학 감상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선애, 『가정, 학교, 친구 관련 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한국청소년학회, 2007.
- 김영천,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방법과 적용』(이용숙, 김영천 편), 서울: 교육과학사, 1998.
- 김창균·임계령, 『학교폭력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한국법학회, 2010.
-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문용린 외,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8.
-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1994.
- _____, 『공감학』, 서울: 학지사, 2004.
- 박영민, 『사회구성주의 학습이론과 독서의 본질』, 『독서연구』 14, 한국독서학회, 2005.
- 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선주원, 『어린이 문학교육의 방법』, 서울: 박이정, 2006.
- 양진희·박윤, 『또래관계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활동이 비인기유아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 연진영, 『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9(2), 한국아동학회, 1988.
- 이석순, 『유아의 공감 발달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9,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9.

- 이수정·이현립,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17(2), 한국아동교육학회, 2008.
- 이복순·강영하·남윤석,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장애아동에 대한 또래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1(2),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0.
- 정대현·신원애,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동일시 현상과 자아개념 분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7,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1.
- 정유미, 「공감의 기제로서의 서사 텍스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 정재식, 「흠과 들뢰즈의 공감 이론 사용법: 경험론의 문학적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18세기 영문학』 4(2), 한국18세기영문학회, 2007.
- 정진성,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 정효진, 「공감을 통한 서사문학 읽기교육」,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조성호·이희경, 「공감과 마음이해: 종합적 접근」, 『인간연구』 15,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8.
- 조양희, 「시감상에서의 시적 공감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효진·손난희, 「공감능력과 이타행동」, 『상담학 연구』 7(1), 한국상담학회, 2006.
- 최미숙,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 특징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0.
- 최미정, 「그림책 활용 독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감능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황석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분석 연구 -서귀포시 초, 중, 고학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9, 제주학회, 2006.

- 현은자 외,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서울: 학지사, 2013.
막스 웰러 저, 조정옥 역,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 2006.
제러미 리프킨 저,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0.

- Cooper, Charles R, (ed.), *Researching Response to Literature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Points of Departure*, Norwood: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5.
- Costello, Peter R. (ed.), *Philosophy in Children's Literature*, Lanham: Lexington Books, 2012.
- Goldfarb, Nancy D, The Value of Literature in Difficult Ti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umanities* 8(11), 2011.
- Harrison, Mary-Catherine, The Paradox of Fiction and the Ethics of Empathy: Reconceiving Dickens's Realism, *Narrative* 16(3), 2008.
- Lewis, David, *Reading Contemporary Picturebooks: Picturing Text*, New York: Routledge, 2001.
- Nikolajeva, Maria, & Scott, Carole, *How Picturebooks Work*, London: Garland Publishing, 2001.

The Aspects and the Significances of Empathy in Children's Picturebook Reading

Ra, Sun Hee*

This study has examined, first of all, the meaning of empathy in relation to the communications with — and the understanding of — the others including people and the text. To be more exact, this paper is aimed at figuring out the meaning of empathy through the situation of children's picturebook reading, and more concretely, through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the text and through the viewpoint of understanding the self, the others and the world.

In order to carry out the task, this study has selected 31 picturebooks that deal with either such social issues as environmental protection, poverty, war, peer rejection, racial discrimination and child labor or universal human issues such as self-respect, honesty, and friendship. It has also selected 30 six-grad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t them read the books and write book reports, and then analyzed the re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empathy.

First of all, the result shows that child readers turned out to feel more easily emphatic with the sentiments of the characters based on either their own experiences or the similarity of the text. This tells us that the size and the diversity of the reader's experienc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empathy. Second, the children could understand the pains of the characters - even though they had not experienced them yet - by playing those

* Research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characters' roles through imagination when it came to some issues, like war,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have easily felt empathy with. This shows that empathy is not only possible to those readers who would feel the sense of identity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In other words, child readers are understood as having been equipped with the capability to understand and feel empathy with even the unfamiliar characters through the role performance of swapping places with them. This result is meaningful in that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text does not remain in the endless replay of the self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but could be expanded further. Reversely, this shows that the text could help the children feel empathy further by offering them a variety of indirect experiences. Third, child readers showed their empathy toward the life of the characters based on their belief in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which means that the degree of their empathy is largely determined by that of their own value orientation. The belief in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is thought to help the children understand the characters by putting them into such unfamiliar situations as poverty or war and by inducing them to change their roles with the characters. Besides, the empathy of child readers with the unfamiliar situations did not remain in the unconditional acceptance of the reality of the text as the complete world but became deeper having been boosted by critical reading. Fourth, child readers were able to get a chance to understand themselves better and to affirm the others by relocating themselves in another reality of the text, and were able to examine the potential for creating a better society. Thus,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empathy — though it starts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s who are dealing with events in the text — could eventually become into a locomotive power for creating a better society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readers outside the

text, the others, and finally the world itself.

Key Words: empathy, picturebook, children, reader-response, the others,
understanding of the self

필자 E-Mail: rasunhee@hanmail.net

투고일: 2014년 6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4일